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첫 도입

중기부, 제도 전반 개편 혁신방안 마련... 전북 참여 스마트농업 특구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전북은 전남·광주, 충남과 함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 참여해 미래 농업기술 실증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의 단일 지역·단일 기술 중심 운영방식에서 벗

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모두 2개 과제가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참여 지역들은 각각의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

래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 구조기술 등을 실증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규제실증이 실제 규제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혁신방안에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특구 지정부터 운영·종료까지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와의 소통 강

화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5급 특·장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이 담겼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와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IIP 서비스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

전북테크노파크,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형 IIIP(Industrial Liaison Program) 서비스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8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형 IIIP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기술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확보한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전북형 IIIP 기술연

결에 참여해 매칭 기술을 확보했거나 해당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 중인 도내 기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두 7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품목과 자율품목으로 구성된다. 필수품목은 기술전략 기획, 사업화 전략 기획, 시제품 제작 가운데 1개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자율품목은 기술이전료 비례 배분, 홍보·마케팅,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검증(PoC) 등으로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저수지 저수율 평년 69%...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확보 총력

재난안전상황실 가동·양수저류·관정 활용 등 비상대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속되는 가뭄 부족에 대응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이어지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수지와 양수장 등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40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2%로, 평년 저수율인 61%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영농 급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뭄 우려 지역을 중

심으로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수저류와 퇴수 재할용, 관정 활용 등을 통해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공사는 지난 7월 말부터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 가뭄 위기 저수지와 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각적인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 누적 강수량은 548mm로 평년 794mm의 69% 수준에 그치면서 가뭄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업인과 관계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가뭄재난안전상황실 전경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이용 정보 공유하는 등 농업용수 절약과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코피아 스리랑카센터 15주년 성과 공유

농촌진흥청이 스리랑카와 15년간 이어온 농업기술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현지 농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캔디에서 해외농업기술협력사업(KOPIA) 스리랑카센터 개소 15주년 기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과 카투나라트나 스리랑카 농업부 차관, 위크라마이라치 스리랑카 농업청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피아 스리랑카센터 발전에 기여한 한국과 스리랑카 유공자 8명에게

농촌진흥청장 감사패가 수여됐다.

행사는 지난 15년간 추진한 농업기술 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지 농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발표에 따르면 양파 종자 생산량은 헥타르(ha)당 600kg에서 최대 1,200kg으로 두 배 향상됐다. 또 건조지 양파 재배기술(Dry-set) 보급으로 연간 두 차례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은 헥타르당 7.7톤에서 28톤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감귤 생산량도 헥타르당 3.2톤에서 8.3톤으로 크게 늘었으며, 토마토와 고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캔디에서 해외농업기술협력사업(KOPIA) 스리랑카센터 개소 15주년 기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추 교배종자의 현지 생산체계가 구축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종자의 자립 기반도 마련됐다.

이어 열린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스리랑카 농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코

피아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공유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술과 인력, 종자 생산 기반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력수요 증가 대응 '검사체계 혁신' 추진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기설비 검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체계 혁신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국민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검사 수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한 검사체계 구축과 운영, 검사원 전문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검사 접수 절차를 개선한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남화영 사장은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업무 절차와 검사체계를 효율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춘 적기 검사와 선제적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세계 최대 규모 식육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과 스마트공장,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미래 식육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육과학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9일부터 대전에 열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ICoMST)'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50개국

의 산업체와 학계,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 등 식육과학 분야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연구성과와 미래 산업 비전을 공유한다.

올해 대회 주제는 '세계 식육산업의 미래지향적 도약(Big Step Forward to the Future Meat)'이다.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과 소비 변화 대응, AI 기반 스마트공장, 식육 가공 기술 혁신, 식육과 건강 등 미래 식육산업의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